



## 어울릴줄 모르는 아이 그리고 부모

조양호/한국언어 장애 연구소장

**한** 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 나를 찾아 왔다.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아이는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전자제품에 관심을 두는 눈치였다. 금방 달려들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다 옆에 놓여져 있는 TV에 손이 가더니 금방 다른 물건에 손을 데려고 한다. 그동안 많이 보아온 행동유형을 이 아이도 가지고 있었다. “이 아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한숨을 쉬는 아이 어머니는 지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물어 왔다.

요즘 이런 “자폐증”은 아니지만 “자폐증적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부쩍 많아 졌다.

주변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 혼자만의 의미 없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아이들, 말이나 표정·제스처 등 남하고 주고받는 훈련이 안된 아이들, 혼자 놀 줄은 알아도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거의 비슷한 음조로 의미 없는 말로 몇 시간이고 혼잣말만 하고 다니는 아이들, 다른 아이들의 놀이에 끼여들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 왜 이런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 걸까?

대부분의 가정이 대가족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대가족 하에서의 구성원인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 양육되고 말을 배우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대신에 부부 단 두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되는 가정환경으로 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 특히 아이들 돌보는 일을 거의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밖에 일에만 매달려 있는 부부, 집에 있더라도 집안의 다른 일로 인하여 부부 특히 어머니가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언어교육을 하는 데 등한히 하거나 같이 있어도 부모의 성격 또는 습관에 의하여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는 것이 부족한 사례 등을 나는 많이 보아 왔다. 그 결과 아이가 말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변의 환경적 요인 말고도 부모의 아이에 대한 일대일 대응 방법도 따져 보아야 할 것 같다. 아이들에게 칭찬해주고 고무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대신에 행동을 막거나 제한을 너무 자주 하는 것이 아이의 언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서투르고 틀려도 이를 격려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어른들이 별로 깊은 생각 없이 호통치고 야단 칠 때 아이들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려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하여 언어 발달의 지체가 있고 어른들에게서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남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는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이의 문제가 ‘사는 것이 바빠서’ 자신의 자녀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런 부모에게 나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바쁘지를 묻곤 한다.

습관적으로 밖에서 빙빙 돌면서 가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느리게 하는 ‘아빠’, 집에 있으면서도 아이와 서로 응대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 ‘엄마’가 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의 아이는 말이 느리게 되고 인지 발달이 지체되는 것이다. 하루에 짧게라도 좋으니 계획을 잡아 프로그램을 간단하게라도 만들어 시간을 내어 아이와 놀아주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바쁘게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점을 오늘 만난 그 ‘엄마’에게도 한참이나 강조하였다. PPFK